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상주보

2017년 2월 26일 (가해) 연중 제8주일 제1630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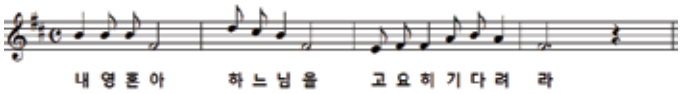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 31-33)

〈 기도하는 손 〉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

[제1독서] ····· 이사 49,14-15

[화답송] ····· 시편 62(61),2-3.6-7.8-9ㄱㄴ (◎ 6ㄴ 참조)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제2독서] ····· 1코린 4,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복음] ····· 마태 6,24-3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6] 주의 백성 모여 오라
- 봉헌성가: [332] 봉헌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65] 예수여 기리리다
  [499] 만찬의 신비
- 파견성가: [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 6,24-34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묵상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이민족의 지배로 인해 군중이 겪는 빈곤과 박탈감, 분노와 슬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중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입고, 자는 일, 곧 의식주입니다.

여전히 절대적 빈곤층이 지구상에 넘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걱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층이 겪는 고민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넘치는 먹거리들 가운데 골라야 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옷장에 가득 찬 옷들을 보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남들이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연일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멋진 남녀들의 모습을 보면 없던 걱정도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본질적인 고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걱정거리 이전에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사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해 온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나를 더 귀하게 여겨 주시고, 훨씬 더 잘 입혀 주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내게 죄스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면, 나는 분명히 재물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갇혀,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로 살지 못하고, 내일을 미리 오늘로 앞당겨 사느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잊고 살아도, '내 바위, 내 구원'이신 하느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타인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는 부활의 파스카, 곧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분명한 목적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참된 친구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인내로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심으로써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려는 뜻을 보여 주십니다.

사순 시기는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화의 도구, 곧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삶을 깊이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듣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특히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루카 16,19-31 참조).

사순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1. 타인은 선물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복음은 가난한 이를 훨씬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비참한 상황에서 일어설 힘도 없고, 몸은 종기투성이며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가난한 이는 라자로이며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 상황에서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라자로는 우리에게 타인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명은 선물이기에 환대와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눈을 열어 생명, 특히 취약한 생명을 환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2.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부자가 어떤 모순에 빠져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난한 라자로와는 달리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저 "부자" 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죄에 따른 타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락은 돈에 대한 사랑에서 허영과 자만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타락의 근원이며, 시기와 갈등과 의심의 원천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타인에게 과시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의 가장 저급한 단계는 자만입니다. 부에 대한 사랑으로써 타락한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은 일종의 맹목을 낳는 것입니다.

3.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재의 수요일 전례는 [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겪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제는 우리의 이마에 재를 얹으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는 결국 모두 죽었고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은 저승에서 진행됩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1티모 6,7)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저승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부자는 저승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비로소 라자로를 알아봅니다.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이 약간의 물로라도 자신의 고통을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라자로에게 요청한 것은 세상에서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바로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결국 더 이상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웃을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는 힘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켜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라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 버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선물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성사와 우리 이웃 안에 살아 계십니다.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극복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을 가리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라는 선물을 새롭게 찾고, 우리를 눈멀게 하는 죄에서 정화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나회 소식

안나회 월례회의가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8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젊게 사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고 말했다.

이 스텔라 수녀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며 스스로 일하고 취미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2월에 생일을 맞는 8명의 회원들을 축하하고 점심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하상회 소식

하상회는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2월에 생일을 맞은 안순상(요한) 형제를 축하했으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처음으로 모임에 출석한 금화열(바오로) 형제를 한마음으로 환영했다. "지혜 나누기" 시간에는 김용의(요한) 형제가 손가락으로 'ㅇ링(ㅇ자 모양의 링) 테스트' 를 하면서 "회원들이 각자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체험담을 나누었다. 점심식사 후 빙고 게임으로 친교 시간을 가졌다.

K of C 소식

본당의 K of C 회원들은 지난 15일(수) 매나사스에 있는 ALL SAINTS 교회에서 불고기, 삼색전 그리고 동태전 등을 나누어주는 저녁 봉사를 했다. 이날 모인 약 40여 명의 미국인 신자들과 사제들은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K of C 는 2단식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두 번 정도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베드로회 정기 모임

베드로회는 지난 19일(일) 친교실에서 71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갖고 영세받은 동기 및 부부의 첫 만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모임 때마다 매번 다른 주제로 신앙과 체험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더욱 성숙해 질 것을 다짐했다. 회원 자매들이 손수 만든 설렁탕을 점심으로 나누며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다.

Religious Studies

Quinquagesima February 26

The period of fifty days before Easter. It begins with the Sunday before Ash Wednesday. It is a Sunday of the second class, and the color of the Mass and Office is violet. For many early Christians it was the beginning of the fast before Easter.

Ash Wednesday March 1, 2017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The first day of Lent

Ash Wednesday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important holy days in the liturgical calendar. Ash Wednesday opens Lent, a season of fasting and prayer.

Ash Wednesday takes place 46 days before Easter Sunday, and is chiefly observed by Catholics, although many other Christians observe it too.

Ash Wednesday comes from the ancient Jewish tradition of penance and fasting. The practice includes the wearing of ashes on the head. The ashes symbolize the dust from which God made us. As the priest applies the ashes to a person's forehead, he speaks the words: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Alternatively, the priest may speak the words,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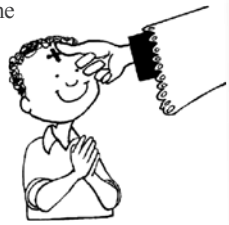
Ashes also symbolize grief, in this case, grief that we have sinned and caused division from God. Writings from the Second-century Church refer to the wearing of ashes as a sign of penance.

Priests administer ashes during Mass and all are invited to accept the ashes as a visible symbol of penance. Even non-Christians and the excommunicated are welcome to receive the ashes. The ashes are made from blessed palm branches, taken from the previous year's Palm Sunday Mas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sh Wednesday is a day of penitential prayer and fasting. Some faithful take the rest of the day off work and remain home. It is generally inappropriate to dine out, to shop, or to go about in public after receiving the ashes. Feasting is highly inappropriate. Small children, the elderly and sick are exempt from this observance.

It is not required that a person wear the ashes for the rest of the day, and they may be washed off after Mass. However, many people keep the ashes as a reminder until the evening.

Why we receive the ashes?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Nine vites, who did penance in sackcloth and ashes, our foreheads are marked with ashes to humble our hearts and reminds us that life passes away on Earth. We remember this when we are told

"Remember, Man is dust, and unto dust you shall return."

Ashes are a symbol of penance made sacramental by the blessing of the Church, and they help us develop a spirit of humility and sacrifice.

What Kind of Ashes Are Used on Ash Wednesday?

The ashes that are used on Ash Wednesday are made from the palms from the previous year's Palm Sunday (also called Passion Sunday), which is the Sunday just before Easter.

Palm Sunday is the day that Jesus rode into Jerusalem with people waving palm fronds to celebrate his arrival. On Palm Sunday today, the priest or bishop blesses palm fronds which are given to the people. After Mass, the people take the blessed palm fronds home and keep them in their houses all year.

The next year, just before Ash Wednesday, the people bring the palm fronds to church and give them to the priest, who burns them to make ashes, which he then blesses. On Ash Wednesday these are used to make the sign of the cross on people's foreheads to symbolize that they belong to Christ and that they are sorry for their sins.

The palm fronds, which symbolized joy on Palm Sunday, now become symbols of the fact we are sorry for our sins. This reflects the joy of the people when Jesus first rode into Jerusalem, which turned to sorrow when he died on the Cross to save them from their sins.

POP! Quiz

1. What is Ash Wednesday?
1) Ash Wednesday is the day Jesus died
2) Ash Wednesday is the day Lent begins

2.What symbolize the ash?
1) Joy 2) Grief

Answer: 1. 2, 2. 2

2017 WorkCamp Volunteer Needed!

2017 WorkCamp needs many adult volunteers to ensure that campers have the best week of their lives!

Please come and join our church's 30 CYO students.

- **Recruiting number** :
  6 Adult Leaders & 6 Contractors
  (Adult leaders must attend VIRTUS training and Background Check)
- **Event Period** : June 24 - June 30
  (Fredericksburg, VA)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Lim, Joseph*** (703)-261-5710
  Kim, Angela (703)-282-4733

ANNOUNCEMENT

1. Students' Confirmation Class

- **Who** : 7th Grade & Up
  (Baptized & Had First Communion)
- **When** : First Day of Confirmation Class
  (Wed., Mar. 1, 7:45pm-9pm)
- **Registration Period** :
  Sundays, Jan 29 - Feb 26
  at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uilding)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

OPEN Gym

All CYO students are welcomed to play Basketball and other games

Hours

• Every Friday •
4:00 pm to 7:00 pm

• Every Sunday •
1:00 pm to 4:00 pm

하상 한국학교 '민속놀이' 잔치

하상 한국학교는 지난 18일(토) '민속놀이' 잔치를 열고, 한국 고유의 풍속과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 문화의 체험으로 연과 제기, 민화 접시를 만들고 간식으로 식혜와 쌀강정 등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았다. 또한 사방치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도 체험했다. 특히 올해 민속놀이 잔치는 워싱턴 소리청을 초청하여 판소리, 남도 민요, 소리북 산조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진도 아리랑 소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하상 한국학교는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언어교육뿐 아니라 문화 체험을 통한 뿌리 교육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다.

신부님과 함께 연만들기

방패연과 가오리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사방치기

2017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안내

-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 **수업 기간** : 2017.6.26(월)- 8.4(금) 6주간
  월-금/ 오전 9:30-오후 3:30
- **접수** : 선착순 200명
- **방문 접수** : 3월 18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교무실)
- **우편 접수** : 3월 18일(토) 부터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학비** : 등록비 $50 포함 (non-refundable)
  첫째: $540, 둘째 : $520, 셋째 : $500
  (Pay to Order : Hasang Korean School)
- **반 편성 시험** :
  6월 2일 (금) 7:00pm ~ 9:00pm
  6월 3일 (토) 10:00am ~ 12:00pm
- **장소** : 하상 한국학교
- **문의** : 교감 (703-598-5540),
  교무실 (703-968-3070)

2017년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안내

- **교육 일정** : 3월 7일- 6월 9일
- **등록 접수** : 2월 26일, 3월 5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교육 과목** :
  컴퓨터기초, 컴퓨터 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 고급 (액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아이팻,
  동양화반(초급, 중급), 미술(수채화, 아크릴),
  시민권 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회화), 수지요법(초급, 중급),
  합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초급,중급)
  기타(Guitar) 교실(초급,중급),
  스트레칭 요가, 라인댄스(Line Dance).
  키보드(Key Board) 교실.
- **개강일** : 3월 7일(화) 오전 9:20
- **대상** : 전 교우 및 일반인 20세 이상 성인(남,여)
- **등록금** : $50.00(점심 제공)
- **문의** : 김명희(율리아나) (703)217-2775

1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 일시: 3월 1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

2 2017년 주교님 사목 보조(Bishop's Lenten Appeal) 약정
- 알링톤 교구에서는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보조를 위한 기금을 약정받습니다. 2017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58,760입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유아세례
- 일시: 2월 26일(일) 오후 3시, 성당

4 레지오 간부교육
- 일시: 2월 26일(일) 오후 1시-4시
- 장소: 친교실(A-1~4, B-3~4)

5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2월 26일(일) 오전 11:30 (B-3)
- 문의: 배석범 알베르또 (703) 477-3491

6 K of C 정기모임
- 일시: 2월 26일(일) 오전 11:30 (A-3,4)

7 전체학부모회의(PTO)
- 일시: 2월 26일(일) 오전 11:30 (A-1,2)

8 파티마 세계 사도직 임원 회의
- 일시: 2월 26일(일) 오후 12시 (친교실 A-4)

9 제76차 예비신자 입교식
- 일시: 3월 5일(일) 오전 11:30 하상관 #106

10 병자영성체
- 일시: 3월 3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 264-0050

1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3월 5일(일) 오전 11:30 (B-1,2)

12 청소년 사도회
- 일시: 3월 5일(일) 오후 1시 (B-3,4)

13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3월 5일(일) 오후 1시 (B-1)

14 학생 견진 성사반 등록 신청
- 접수 기간: 2월 26일(일)까지
- 접수처: 하상관 로비
- 첫수업: 3월 1일(수) 오후 7:45 - 9시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15 주일학교 장학금 에세이 콘테스트 (K of C 주관)
- 초등부(CCD), 중등부(Jr. High CCD), 고등부(CYO)별 에세이 콘테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초등부(CCD) : "하느님, 감사합니다."
  중등부/고등부(Jr. High CCD,CYO) :
  "Living as Korean -American Catholic"
- 마감: 5월 21일(일)
- 발표: 6월 4일(일) 학생미사(11:40) 중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16 K of C Car Raffle 판매
- Car Raffle 티켓 판매
  (8시,10시 미사 후 친교실 / 4월 29일까지)
- 자동차 5대, $20,000 (현금) 상품이 있습니다.
-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을 위해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raffle 1장당: $5)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17 성령기도회(2017년 미 동중부 기초 성령 묵상회)
- 내용 : 성령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나 영적 성장을 갈망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3월 9일(목) 오후 3시 - 11일(토), 오후 5시(2박 3일)
- 장소 : 볼티모어 한인성당 피정 센터
- 참가비 : $180(숙박비 포함)
- 신청 마감 : 2월 26일(일) (선착순 35명)
- 문의 : 안진이 제오르지아 (703)216-5792

18 성바오로딸 도서 선교
- 일시: 3월 18일(토), 3월 19일(일) 매 미사 전후
- 성바오로딸 수도회에서 본당을 방문, 다양한 도서와 CD, DVD 등을 전시 • 판매하니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9 3월 첫토요일 성모신심 기도회
- 일시: 3월 4일 (토) 오후 6시 15분
- 묵주기도와 묵상, 교황님께 바치는 기도 등 약 45분간 함께 드리는 첫토요일 성모신심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김지윤 그라시아 (571) 243-5054

20 하상 성인학교 강사 회의
- 일시: 3월 5일(일) 11:30(A-3)
- 하상 성인학교 강사께서는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월 26일(일)	연중 제8주일	8시미사 전례부 모임(오전 9시, A-4), 75차 새영세자 환영식(11:30, B-1,2), PTO 미팅(11:30, A-1,2), K of C(11:30, A-3,4), 요한회(11:30, B-3,4), 레지오간부 교육(오후1시, A-1~4, B-3~4),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27일(월)	연중 제8주간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28일(화)	연중 제8주간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1일(수)	재의 수요일	레지오 마리애(9:30, 친교실),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오전 11시, 오후 8시)
2일(목)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3일(금)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병자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회장단 회의(오후 8시)
4일(토)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아침 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9:30,친교실), 첫토요일 성모심신 (오후 6:15), 파티마 사도직 쎌모임(오후 6시, B-4), 청소년 농구대회(오후 12시-6시, 체육관)
3월 5일(일)	사순 제1주일	76차 예비자입교식(11:30, 하상관 #106), 하상성인학교 강사 회의(11:30, A-3), 구역봉사자 교육(11:30, B-1,2),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오후 1:30-5:30, 하상관 #5)

3월 1일(수)은 '재의 수요일' 입니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3월 1일)부터 성목요일(4월 13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며, 우리는 이 시기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합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킵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3월 2일 (목) 오후 5:00-6:00
3월 3일 (금) 저녁 11:00-12:00
3월 5일 (일) 자정 12:00-1:00

- **가톨릭 뉴스**
- **임 따라 한평생 :** 원로 사제들의 살아온 이야기. 가톨릭 합창단 지휘자 백남용 신부(1편)
- **톤즈에서 온 편지 :** 남 수단 톤즈에서 봉사하는 젊은이의 영상 편지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 **다함께 성가를 :** 이 솔리스티와 함께 하는 성가 배우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2월 19일 (연중 제7주일)

주일헌금	$ 7,364.83
교무금	$ 13,390.00
교무금(신용카드)	$ 2,920.00
특별헌금	$ 675.00
2차 헌금	$ 0.00
합계	**$ 24,349.8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조정현 (안드레아) 김동분(아가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서종원씨 자 : **서동준(마태오)**
◈ 김상욱씨 녀 : **김민승(안나)**
- 일시 : 2017년 3월 11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교우 비즈니스 광고 (광고 신청 및 문의: 성당 사무실)

RE/MAX Gateway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영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주택, 사업체
703-649-211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이창재(시몬)
703-338-4665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 (Selina)

광고 접수중!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